

여성이 새로 여는 세상

충남
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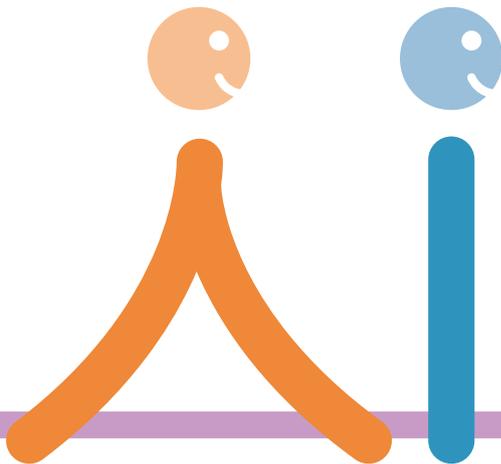
여성



2017
vol.36

성평등 충남의 문을 열다

- 충남여성의 힘, 풀뿌리 •
- 충남여성, 이곳에서 배운다 •
- 우리가 꿈꾸는 세상 •
- About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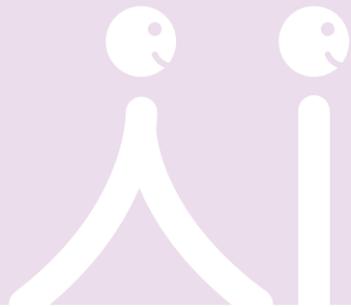
충남인 여성in

성평등 충남으로 가는 길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충남여성과 함께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여정을

연간 소식지 「충남인여성in」에 담았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연간 소식지

목차



발간사

04 발간사

충남여성의 힘, 풀뿌리

- 10 제3회 풀뿌리여성대회
- 16 지역여성 소모임 워크숍
- 18 풀뿌리 자치학교
- 20 풀뿌리 자치학교 통합워크숍
- 22 풀뿌리선진지 탐방
- 28 풀뿌리소모임 성장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성과 결과보고회

- 성평등강사 양성과정 36
- 성 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교육 40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젠더 포럼 42
- 개원 18주년 기념 세미나 46

- 충남 젠더거버넌스 출범식 52
- 충남 젠더 포럼 58
-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소개 60
-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성주류화 포럼 62
- 여군 역량강화 워크숍 64

-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연수 66
- 지면으로 보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70
- 언론 속 충남여성정책개발원 73

충남여성,
이곳에서 배운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

About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벚꽃이 막 망울을 달기 시작했던 올 3월에 본원에 부임했습니다. 봄, 여름과 가을을 거쳐 어느덧 세모를 맞습니다. 오늘, 영하 10도를 넘는 찬바람 속에서도 계룡산 자락의 겨울나무들은 햇빛을 받으며 의연하게 서 있으니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2017년, 우리는 성평등정책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만났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충남도와 본원이 함께 만들어 낸 여성정책 로드맵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이 그 실천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충남

젠더거버넌스'를 출범시키면서 그 안에 젠더혁신, 일-생활균형, 성평등문화확산, 평등한 자원배분, 그리고 안전건강사회조성이라는 다섯 개 위원회를 만들고, 이들이 엮어 낸 첫 포럼도 성료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도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여성정책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정책부서에서 성평등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함으로써 보다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성평등의 미래는 벌써 우리 안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본원 연구원들은 땀 흘리며 작업을 마감하느라 연구실에서 밤을 보냈고, 낮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도청과 시·군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충남의 여러 마을에서 더 행복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간과 수고를 바치고 있는 소박하고도 용감한 풀뿌리 여성들도 만나러 갔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는 만큼 사람들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공주와 멀리 떨어진 시·군지역에서 먼 길을 마다않고 오는 여성들, 충남성평등강사양성교육, 풀뿌리자치학교, 그리고 소모임 인큐베이팅 사업과 같은 공간에서 눈을 반짝이는 사람들. 그들은 '젠더'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고 말하게 되어 기뻐했고,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하니 이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한 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지지, 인사와 격려로 인해 살았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며 서로에게 더 큰 의미와 더 큰 기쁨이 되기를, 그리고 새 아침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17. 12.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원장 허성우



안녕하십니까.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남궁영입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걸어온 길을 도민과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충남인 여성in」의 발간을 뜻깊게 생각하며,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지난 1999년 개원 이래, 우리 도의 여성·가족 분야의 싱크탱크로서 성평등한 도정 구현에 기여해 왔으며, 지역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여성이 단순한 정책수혜의 대상이 아닌 도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허성우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각 지역에서 활동해 주시는 여성리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주요 도정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고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지난 2016년 12월 '양성평등비전 2030'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 도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젠더거버넌스'를 출범시켜 관 주도의 획일적 정책 추진이 아닌,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치 모델을 구축해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충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주력하고 있는 여성 역량강화와 여성네트워크 구축, 성평등 공감대 확산 등의 노력은 우리 도의 협치 역량을 강화하는 길이자, 지역의 성평등 기반을 튼튼히 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여성정책개발원의 전 직원들과 함께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도정은 물론,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에는 충남도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2.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이사장 남궁영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정희입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추진했던 각종 연구사업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충남여성in」이 발간된 것을 21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 소식지가 발간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여성 농·어업인과 문화적 차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들, 일자리를 찾는 청·장년여성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과 노인, 장애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가족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맙다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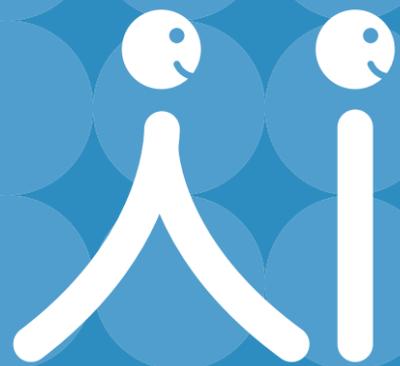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 풀뿌리 여성들의 지역참여와 역량강화는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사회·경제참여와 미래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발맞추어 성 평등 실현을 위한 많은 정책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연구과제 발굴과 여성·가족정책 제언은 물론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 소식지 발간이 지난 1년간의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등을 함께 공유하고 여성의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 12.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정희



충남여성의 힘, 풀뿌리

- 제3회 풀뿌리여성대회
- 지역여성 소모임 워크숍
- 풀뿌리 자치학교
- 풀뿌리 자치학교 통합워크숍
- 풀뿌리선진지 탐방
- 풀뿌리소모임 성장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성과 결과보고회



+ 평등은 더하고 차별은 빼고

제3회 플뿌리여성대회

3월 9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충남플뿌리여성대회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의 오프닝 동영상으로 시작했다. 영상 속 아이들은 '남자 색', '여자 색'에 관해 말하고 '남자는 키가 커야 해.' 등 성에 따른 역할을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규정한 성 역할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사고를 한정한다. 그 틀을 깨고 나오는 길, 우리의 꿈의 시작은 양성평등이다. 어느덧, 아이들이 다시 외친다. "여성은 암전하고 남성은 썩어야 하나요?"

플뿌리+여성? 즐거움이 함께하다

2017년 제3회 플뿌리여성대회는 '평등은 더하고 차별은 빼고'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홈커밍데이이기도 했던 이날 행사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펼쳐졌다. 드레스코드인 '보라색' 의상을 입고 온 사람들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허성우 원장은 "플뿌리 여성대회를 통해 지역에서 경험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만남으로 힘을 얻게 되길 바란다."라며 반가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후 대회는 감사의 마음 전달식,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그동안 함께해 준 고마운 이들에게 '대단한 발 상'과 '남이 아나 더이 상'을 수여했다. 앞으로도 개발원의 가족으로서 열심히 활동해 줄 것을 격려하는 의미의 상이기도 했다. 축하공연은 퓨전타악그룹 '타인락'이 맡았다. 이들의 공연으로 장내에는 비장함과 흥겨움이 함께 감돌았다.



차별을 이야기하고 평등을 기대하다

기념촬영에 이어 제3회 충남풀뿌리여성대회의 본격적인 이야기 마당이 이어졌다. 활동 사례 발표는 크게 여성환경, 여성노동, 여성문화로 섹션을 나누어 진행됐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신은미 활동가가 여성환경을 주제로, 부여군여성농민회 신지연 조직교육부장이 여성노동을 주제로, 천안여성영화제 심혜경 (전)프로그램머가 여성문화를 주제로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사례발표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발표 사례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발표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함께 고민하기도 했다.

'나눔의 시간'은 이날 대회의 마지막 코너였다. 참석자들은 조를 나누어 각자 자신을 소개했고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이후에는 베스트 드레스코드 시상식이 이어졌다. 이날 사회를 맡았던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이채민 연구원은 "흔히 남성을 상징하는 색을 파랑, 여성을 상징하는 색을 빨강으로 여긴다. 오늘 드레스코드는 이 두 가지 색을 섞은 보라색으로 정했다."

라고 설명했다.

대회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손에 든 풍선에 없애고 싶은 것들을 적었다. '성차별, 야근, 여성혐오...' 다양한 단어가 풍선에 적혔다. 모두가 이 풍선을 하나씩 터뜨리며 차별 없는 세상을 기원했다. 팡팡, 풍선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이채민 연구원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제3회 충남풀뿌리여성대회의 막이 내렸다.

"모두 손을 잡아 주세요. 내 왼손은 다른 사람의 오른손이 잡아 주고 내 오른손은 다른 사람의 왼

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왼손이 힘들 때 누군가가 오른손으로 힘이 되어 주는 것이 연대가 아닐까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사례 발표

“여성환경, 여성노동, 여성문화를 말하다”



“농촌에서 활동가로 살아가기”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신은미 활동가

저는 2014년 7월 홍성으로 귀촌해 환경운동가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행을 감행했던 건 환경운동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 많고 문제 많은 도시에서 아등바등 사느니 한적한 시골에서 텃밭을 일구며 여유롭게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환경연합과의 인연으로 홍성으로 내려온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골집을 얻어서 텃밭을 가꾸고 꽃감도 말리면서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생태화장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무분별한 개발 사업 반대 운동, 생태교육, 환경 캠페인, 쓰레기연구소, 헌옷재활용모임인 수선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능력 있는 활동가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나답게 그리고 이웃과 함께 변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과 환경운동을 조화롭게 펼치고, 그 일을 동지, 친구, 이웃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성 농민의 가치를 인정해 주세요”

부여군여성농민회 신지연 조직교육부장

저는 여성 농민이 겪는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성 농민은 농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돌봄노동,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한 일 등 많은 일을 합니다. 노동의 장과 생활의 장이 분리되지 않고 출근도 퇴근도 없는 것이 여성 농민의 삶이죠. 또, 농촌사회의 마을 총회에는 여성의 표가 없어요. 1가구 1표인데, 대부분 남성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공동경영주 제도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남편 동의가 있어야 공동경영주가 될 수 있다는 모순 또한 존재합니다.

이렇듯 여성 농민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여성 농민의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 및 정책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여성 농민의 손으로 식량 주권을 실현하고 여성 농민이 행복한 농촌,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영화로 여성과 만났습니다”

천안여성영화제 심혜경 (전)프로그래머

저는 제5회와 6회 천안여성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로 활동했습니다. 여성 영화와 여성의 행복한 만남을 통해 천안 여성들 간의 활발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천안여성영화제는 여성 감독이 제작한 여성과 연관된 주제의 한국영화 최근작을 우선 선정하고, 이 중 대중영화, 다양성영화, 지역영화를 골고루 안배합니다. 여성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남성 감독의 영화를 배제하지는 않아요.

천안여성영화제는 회를 거듭하며 많은 이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천안여성영화제가 상시적인 조직으로 지역 여성 문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정할 수 있는 문화기구로 기능했으면 합니다. 🌍

지역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첫 걸음

지역여성 소모임 워크숍

2017년 한 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충청남도의 5개 시·군 지역여성 소모임 워크숍으로 지역여성과 만났다. 개발원과 각 지역여성 소모임, 공무원이 만나 지역의 여성 활동과 이슈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체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각 워크숍은 여성 소모임 활동의 현황을 서로 공유하고, 지자체의 정책추진 상황을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듣고, 개발원의 사업 소개를 내용으로 진행함으로 지역여성의 활발한 네트워크 형성의 계기가 됐다.

여성 소모임 등의 민간 부문과 개발원 및 시·군의 공공 부문이 상호 이해와 신뢰의 계기를 마련해 성평등 민간협치의 토대를 구축하고 지역 여성의 정책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계기로 삼았다. 2017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5개 시·군 지역여성 소모임 워크숍을 사진으로 만나 본다.



5. 19
논산

논산에서는 5월 19일 논산시청 2층 상황실에서 워크숍이 진행됐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영주 실장이 개발원의 연구 및 교육사업 등을 소개했고 각 소모임의 대표가 활동 내역을 발표했다. 참석자 전체의 토론회도 진행됐다.



5. 25
금산



10. 26
당진

당진에서는 10월 26일 당진여성의 전당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허성우 원장이 젠더 거버넌스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고 각 소모임 대표가 사례를 발표했다. 당진시 여성정책을 소개하고 지역여성단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금산에서는 5월 25일, 금산 여성창의문화센터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금산군 내의 다양한 여성 소모임 활동가들이 모여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여성플뿌리 소모임 활동의 의미와 젠더 관점에 관한 강의가 이어졌다. 강의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조윤진 연구원이 맡았다.



11. 30
부여

부여에서는 11월 30일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에서 워크숍을 실시했다. 각 소모임 대표가 활동 사항을 공유했으며 부여군의 여성, 성평등 관련 정책 소개 시간도 이어졌다. 이후에는 참석자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았다.



11. 14
태안

태안에서는 11월 14일 태안군 교육문화센터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각 소모임에서 활동 사례를 공유했고 이어 태안군의 여성, 성평등 정책사업 소개 시간이 진행됐다. 참석자끼리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도 펼쳐졌다.

여성,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기

풀뿌리 자치학교

올해 3기를 맞이한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는 7월 19일 문을 열었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역 여성이 성평등 가치의 구현이라는 관점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학교 교육과정은 36시간의 기본과정과 12시간의 심화과정으로 구성됐다. 7월 19일부터 시작한 기본과정은 휴가 피크 기간을 제외하고 매주 수요일 총 6일 동안 성인지각수성 훈련과 성인지 정책, 자치와 참여의 이해, 젠더관점에서 지역 이슈 발굴 및 대안 모색, 지역 여성 풀뿌리 활동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과정을 수료한 충남여성은 총 20명이다. 특히 올해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에는 태안을 비롯한 해안 지역 여성과 청양을 비롯한 내륙 지역 여성, 천안을 비롯한 도시 지역 여성 등 다양한 지역의 여성 활동가들이 참가했다. 성평등과 지방자치에 대한 충남여성의 관심이 커져 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허성우 원장은 “이번 여성 풀뿌리자치학교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서 새롭게 등장한 지방분권시대에 여성들의 지방자치 참여역량을 기르는 의미 있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충남여성들의 도정 참여, 특히 올 6월 발족한 ‘충남 젠더거버넌스’의 토대가 강화되어 더 행복한 마을, 더 평등한 충남 지역 문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수강생들을 응원했다.

현재 충남 15개 시·군 지역 여성들의 자치참여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실천하는 도내 분위기도 미약한 편이다. 이런 조건에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본 교육 이수 후 수료생의 활동 의사와 의지, 능력과 적성, 분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충남도 및 시·군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등으로 지방자치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행복한 마을, 더 평등한 충남 지역 문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충남여성 풀뿌리 한자리에 모이다

풀뿌리 자치학교 통합워크숍

9월 22일에서 23일,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강의를 듣고 교류하는 워크숍이 열렸다. 수료생들은 1박 2일 동안 서산 폰타나리조트에 머물며 소통했다. 이 자리에는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1기와 2기 수료생들도 참석해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냈다. 충남도의 권역이 넓어 수료생들이 한 곳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이날은 특별히 다양한 지역의 1, 2, 3기 수료생이 한자리에 모였다.

1박 2일 이어진 이번 워크숍 중 첫날에는 풀뿌리 자치학교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시간과 함께 수료생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후 고양시 동네친구의 조이현임 대표가 여성주의 마을운동 사례에 관하여,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

원센터 전민주 사무국장이 민주주의와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강의했다.

두 사람의 강의는 풀뿌리 자치학교 수료생들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들의 고민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었다. 수료생들은 두 사람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이후 저녁 식사를 마친 수료생들은 지역별 활동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연대를 다짐했다. 한편, 우수 수료생에 대한 수상도 진행됐다.

다음 날에는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했고 연대, 협력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지면으로 전하는 강의 풍경

“혼자서는 용기 나지 않는 일
함께하고 있어요”

동네친구 조이현임 대표



저는 고양시의 동네친구라는 여성동아리 플랫폼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는 단체입니다.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같은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동네친구 회원들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집단에 속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조직 활동을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단체 내에서 무언가를 얘기하면 그것이 시도되는데, 이렇게 작은 성공을 지켜보는 데서 오는 감동이 큼니다.

동네친구가 고양시 내에서 어떤 것을 해 보고 싶은데 혼자서는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분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곳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전민주 사무국장



여러분은 민주주의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촛불, 5·18, 인권,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많은 의견이 나왔네요. 링컨의 연설 중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는 문구가 있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라는 말 중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셋 모두 훌륭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나라의 주인은 누구이고 과연 주인이 따로 있어야 할까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파커 J. 파머는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마음을 기르는 것, 그러함으로써 각자의 지역에서 직접 주인이 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나와 우리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

풀뿌리선진지 탐방

11월 10일, 이른 아침부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기분 좋은 웃음과 대화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날은 한 해 동안 개발원과 함께해 온 여성 풀뿌리 소모임 활동가들이 남원 지리산 실상사 주변 산내마을로 풀뿌리 선진지 탐방을 가는 날이었다. 활동가들은 서로 교류하며 지리산 마을카페 토닥, 나눔꽃, 살림꽃 여성활동공간, 지글스 등을 탐방하며 자신의 지역에 적용할 사례는 없는지 고민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때마침, 색색으로 물든 가을 지리산이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활동가들을 맞이했다.



교류, 가능성을 발견하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풀뿌리선진지 탐방 프로그램은 충남 여성 활동가들의 교류와 학습의 장으로 기능해 왔다. 이번 지리산 실상사 주변 산내 마을의 풀뿌리선진지 탐방 역시 그러한 취지로 기획됐다.

아침 일찍 개발원에 모인 연구원들과 활동가들은 한 버스를 타고 지리산으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활동가들은, 지역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며 앞으로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 그 방향을 모색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활동가들이 탄 버스는 어느새 지리산 실상사 근처에 도착했다. 점심을 먹은 후 활동가들이 먼저 향한 곳은 마을카페 토

닥이다. 마을카페 토닥은 단순한 카페가 아닌, 마을 사람들이 교류하며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곳이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마을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기금으로 마을에 환원한다.

또한, 마을카페 토닥은 공연, 강의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기도 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간을 빌려주기도 한다.

이곳에서 지리산여행협동조합 조창숙 이사가 산내 마을의 다양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조창숙 이사는 지리산으로 귀촌한 지 10년이 되었으며 현재 여행자들에게 지리산 일대 여행을 돕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



“산내 마을의 인구는 2천 명 정도이고 그중 초등학생이 1백여 명, 중학생이 50여 명입니다. 40~50대가 산내 마을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1998년 실상사에 귀농학교가 개설되면서 그때 귀농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지요.”

조창숙 이사는 먼저, 산내 마을에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실상사를 중심으로 귀농한 이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산내 마을에는 각종 모임 활동이 발달해 있다. 서로 나누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모임의 형태로 발전시킨다. 독서, 운동, 악기, 명상, 텃밭 등 몇 십 개의 모임이 활동 중이며 어떻게 하면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지 고민하고 있다. 그중 산내 놀이단의 활동은 마을에 활력을 가져다주었다.

“마을에 약장수들이 들어왔던 적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비싼 물건들을 사면서 공연을 보고 즐거워하는 게 속이 상했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니까 가지 마시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던 중 우리가 직접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 드리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렇게 산내 놀이단을 꾸렸고 트로트, 각설이, 차력, 풍물놀이, 마당극 등을 진행하게 됐어요.”

한 번 놀이마당을 진행하는 데 40~50명의 품이 필요하다. 공연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모셔 올 차량 운전, 방법 등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몇 해 동안 진행한 놀이마당은 이제는 산내 마을의 인기 행사로 자리 잡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획으로 지리산과 세상을

“마을카페 토닥 같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보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탐방을 통해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양 여성행복네트워크
윤예주



“힐링할 수 있는 나들이가 될 것 같아 참여했는데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알차서 놀랐습니다. 각자의 사명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어요.”

천안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장동미



연결하는 지리산 커뮤니티 이름, 지리산에 살래 펀드 등 지리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조창숙 이사는 마을의 변화를 지켜본 경험을 살려 충남의 활동가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을에서 살다 보면 서로 신뢰를 쌓아 갈 수 있어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협동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면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이후 조창숙 이사와 활동가들은 실상사까지 걸어서 이동했다. 조창숙 이사에게 지리산과 주변 환경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천천히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실상사는 신라 구산선분 중 처음으로 문을 연 사찰로 한국 선풍(禪風)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실상사 주위로는 논과 밭이 형성되

어 있는데, 처음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깊은 산속에 있었다고 한다. 실상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마을이 형성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역사가 이어져 많은 공동체 활동이 진행된다.

실상사 탐방까지 마치고 활동가들은 여성활동 공간인 나눔꽃, 살림꽃으로 이동했다. 행복한 가게 나눔꽃은 더는 입지 않는 옷이나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누는 역할을 한다. 나눔꽃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옷가지들은 살림꽃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는다. 대표 류정희 씨가 이에 관해 설명했다.

“나눔꽃에서 주인을 못 찾은 옷들이 한 계절에 열 자루씩 나왔어요. 깨끗하고 좋은 옷인데 버리기 아까우니 되살려 보자는 취지로 살림꽃을 만



“이제 막 논산여성농민회를 만든 시점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리산에서 만났던 많은 단체처럼 서로 힘을 주고받으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농민회로 키워 나가고 싶단 생각을 했습니다.”

논산여성농민회 유화영

들어 리폼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살림꽃에서는 버려질 운명에 처했던 옷가지들을 조각내 쿠션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리폼을 고민한다. 이른바 블루밍 살림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문화기획달과 함께 진행 중이다.
 문화기획달은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주의 문화단체다. 독립잡지 계간 「지글스」를 발행하고 있으며 지리산 여성전용

창작생활공간 살롱드마고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기획달의 달리 씨가 직접, 지리산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네 언니들과 함께 ‘지리산에서 글 쓰는 여자들’의 준말인 ‘지글스’라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잡지였는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것이 페미니즘 활동으로 이어졌어요. 시골이라는 폐쇄적인 사회에서 불편한 것들을 드러내고 이야기 나누는 게 쉽지



않지만, 함께 고민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달리 씨 역시 마을의 많은 활동가와 비슷하게 이곳으로 귀농한 케이스다. 문화기획달은 마을에 오래전부터 형성돼 있던 기존 질서에 어떻게 틈을 만들지 끊임없이 고민해 왔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했다. 마을에서 벌어진 성차별 사례를 조사해 만든 사례집은 마을에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화기획달이 계속 여성주의 활동을 이어가는 이유는 이것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달리 씨와 활동가들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이어졌다. 자리에 모인 이들이 꿈꾸는 세상의 모습은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 노력해야만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2017 풀뿌리선진지 탐방은 해가 질 무렵 끝을 맺었다. 혼자 가는 길보다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확인한 하루. 활동가들은 각자가 활동하는 지역에서, 혹은 그 지역을 뛰어넘어 어떤 활동을 진행할 것인지 즐거운 고민을 이어가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있는 곳으로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가능성의 씨앗을 가슴에 하나씩 품고, 또 다른 만남을 약속하며 일정은 끝을 맺었다. 🌱

풀뿌리 여성,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

풀뿌리소모임 성장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성과 결과보고회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지난 한 해, 충남여성 풀뿌리소모임 성장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펼쳤다. 충남도 내 여성 풀뿌리 소모임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된 이번 공모사업에는 2016년 공모사업의 우수 2팀 소모임과 신규 소모임 4팀이 선정된 바 있다. 이들 소모임은

지난 한 해 어떤 활동을 펼쳤을까?

12월 5일 열린 풀뿌리소모임 성장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성과 결과보고회는 사업의 지원을 받은 소모임들이 그간의 활동을 발표하고 컨설턴트가 소감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구성됐으며 우수모임 시상도 진행됐다. 2018년에 이어서 지원을 받을 팀은 논산시여성농민모임 새싹과 천안 크림스레이크로 선정됐으며, 소정의 상금은 공모사업에 참여한 전체 팀에게 같은 금액으로 돌아갔다.



충남여성 풀뿌리소모임 활동 소개

젠더감수성 UP 평등문화 UP 천안 해피트리

천안 해피트리는 천안의 상담소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향상 교육, 심리분석 젠더 민감성 찾기, 성평등 문제 미디어 분석 등의 활동을 실시했다. 이로써 구성원들의 왜곡된 고정관념을 수정하고 성인지적 전문성을 강화했다. 더불어 상담을 주로 하는 구성원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며 삶의 질이 향상되기도 했다.



크림스레이크는 천안에 거주하고 취미로 미술을 배우는 직장인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미술을 매개로 모여 공통 관심사로 소통하며 지적문화를 교류했다. 한 해 동안 이들은 여성주의에 관해 공부하며 이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현충사와 천안 알롱지 갤러리 카페에서 전시하며 많은 시민과 소통했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여성주의 크림스레이크





새싹은 논산시의 여성농민 모임이다. 매번 모임 때마다 토종씨앗, 성평등 등의 주제로 강의를 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도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농민행복바우처에 대해 홍보도 하고 1여성농민 1토종지키기의 시발점을 만들기도 했다. 시작할 때는 여성농민회를 만들어 보자는 준비 모임이었지만, 구성원들의 열정으로 지난 10월, 창립총회를 열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는 2017 논산시여성농민사랑방
논산시여성농민모임 "새싹"**

아이가 별로 없는 금산에서 비슷한 또래의 아이 엄마들이 만났다. 총 다섯 가족이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에 만나 그림책 읽기, 양성평등 직업체험, 아이와 부모의 공동 밥상, 부모 성장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이로써 구성원들은 가정 내 성 역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향상하는 계기가 됐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하게 성장하기
금산 올망졸망**



**타로와 함께 배우는 여성주의
서산 서산풀뿌리여성연대 '옴니버스'**

서산풀뿌리여성연대 옴니버스는 지역 여성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 이슈에 개입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성평등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임이다. 2017년에 3년차를 맞았던 이들은, 페미니스트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마더피스타로 여성주의에 관해 공부하고 자신을 알아가고 치유하는 계기로 삼았다.

**목화와 함께 피는 마을 이야기
아산 생태문화공동체 '마즐' 앵두골 텃밭**

생태문화공동체 마즐은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목화를 심는 것에서 시작했다. 그렇게 마을을 인식하고 마을 여성을 만난 구성원들은 마을 공동체에서 여성이 주인으로 서는 게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이들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구술자료집을 기획했다. 사라져 가는 마을 모습을 기록하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 살았던 여성을 기록해 책으로 엮었다. 마을잔치 북콘서트도 진행하며 마을 여성이 화합하는 장을 만들었다.



컨설턴트의 한마디



“함께 힘을 키워나갑니다”

허성우 원장

플뿌리 여성운동이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플뿌리 여성을 직접 만나서 함께 호흡하고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살아 있는 변화에 관해 이야기 들으면서 이것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많은 곳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으면 합니다. 서로 힘을 키워 나가는 데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플뿌리, 성평등 사회의 마중물”

아산 윤금이 컨설턴트

저는 천안 해피트리와 논산시여성농민모임 새싹의 컨설팅을 맡았습니다. 그동안 참 애쓰셨습니다. 새싹의 활동을 보며 충남 농업의 희망이 싹트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해피트리는 성인지적 관점 등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앞으로 후속모임을 탄실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사업 중에 여성플뿌리소모임 성장프로젝트 지원사업이 가장 멋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활동한 여러분에게 박수를”

청양 박영숙 컨설턴트

저는 서산플뿌리여성연대 옴니버스와 아산 생태문화공동체 마즐의 컨설팅을 맡았는데요. 활발한 컨설팅 활동을 못해 아쉬움이 듭니다. 먼저, 마즐의 경우 구술사를 통해 세대 간 소통을 이끌어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옴니버스는 제게도 생소한 마더피스 타로를 소재로 활동했는데요.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컨설팅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아닐까 합니다.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점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모임을 꾸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동안 열심히 활동한 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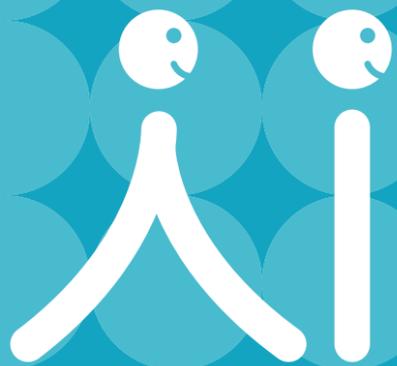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당진 김진숙 컨설턴트

저는 천안 크림스레이크와 금산 올망졸망의 활동을 지켜봐 왔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자신들의 활동을 발표하는 데서 성장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모임 구성원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저 자신도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모임을 진행하며 컨설턴트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간섭보다는 지켜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성이 모임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민 속에서 모임을 진행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모여서 가치로운 일들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여성, 이곳에서 배운다

- 성평등강사 양성과정
- 충남 성 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교육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젠더 포럼
- 개원 18주년 기념 세미나

성평등 세상을 위해 능력을 키우다

성평등강사 양성과정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충청남도 내 성평등 교육을 담당할 충남성평등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양성과정은 성평등 강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 가치, 지식, 기술을 함양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연내 84시간(14일), 기본, 전문, 실전, 위촉 4단계로 구성된다. 교육생들은 다양한 동기를 지니고 양성 과정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들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세상의 모습은 같았다. 모두가 살기 좋은 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 교육생들은 양성과정 기간 발전하는 자신을 지켜보며 성평등한 세상이 모두에게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와 있음을 발견했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시간

2017년 충남성평등강사 양성과정은 4월부터 시작됐다. 4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성평등 강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 가치에 대해 배우는 기본과정이 이루어졌고 6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젠더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전문과정이 실시됐다. 9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실전과정으로 강사의 역할, 강의 안 작성, 강의 기법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11월 2일과 3일에는 강의 시연 및 평가가 실시됐다.

교육생들은 강의 시연 및 사전학습과제 평가 결과에 따라 충남성평등강사로 위촉되며, 1년의 위촉기간 후에는 보수과정 이수, 강의 실적, 강의 모니터링 평가를 반영해 재위촉 여부가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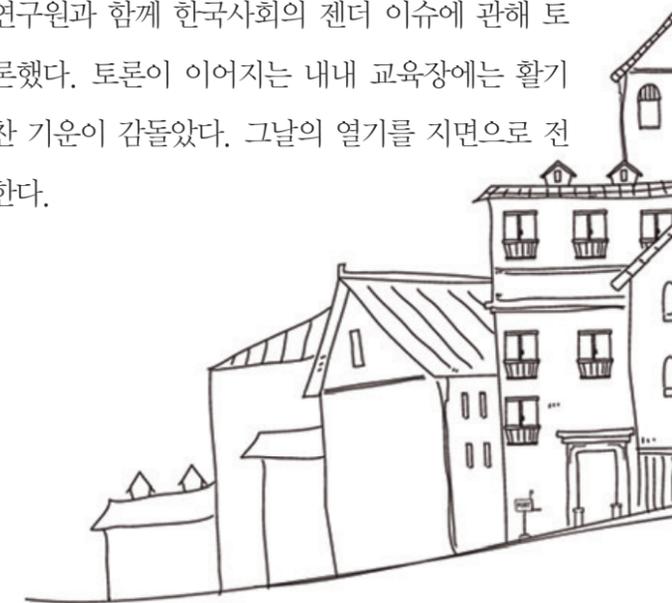
충남성평등강사로 위촉되면 도내 성평등 강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충남성평등강사단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충청남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됨과 동시에 젠더 전문가로서 충남 젠더거버넌스에도 참여하게 된다.

분야별 이슈를 젠더 관점으로 보다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전문과정은 우리 사회의 분야별 이슈를 젠더관점으로 분석하는, 전체 과정의 핵심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6월 20일에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이현재 교수가 젠더와 사회정의를 주제로 강의했다. 6월 21일에는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슬아 사무국장이 젠더렌즈로 미디어 읽기를 주제로 강의했고 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루인(배성민) 연구활동가가 한국사회 남성성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6월 22일에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영주 수석연구위원이 젠더폭력과 성매매를 주제로, 한국여성노동자회 주경미 교육위원이 노동에서의 젠더 이슈를 주제로 강의했다. 6월 23일에는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허민숙 연구교수가 한국사회 가족과 성평등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교육 프로그램을 거쳐 젠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운 교육생들은 전문과정의 마지막 날이었던 6월 23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조운진 연구원과 함께 한국사회의 젠더 이슈에 관해 토론했다. 토론이 이어지는 내내 교육장에는 활기찬 기운이 감돌았다. 그날의 열기를 지면으로 전한다.



사진으로 본 성평등강사 양성(전문)과정



양성과정의 진행되는 동안 쉬는 시간이면 맛있는 간식 거리가 교육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빵 하나씩 손에 들고 모두 김치~!



1모듬은 가족문화 문제 해결을 주제로 이야기 나눴다. 육아도, 살림도, 업무도 잘하는 여성을 흔히 '슈퍼우먼' 이라고 부르는데, 슈퍼우먼을 당연시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2모듬은 '성매매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했다. 남성의 성문화를 용인하는 사회구조가 문제라고 분석했고 무엇보다 사회구조를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했다.



3모듬은 우리 사회의 남성성에 대해 토론했다. 평소 우리가 당연하게 직면했던 여러 문제를 더 섬세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 나눴다.



4모듬은 '젠더 안경으로 미디어 보기'를 주제로 이야기 나눴다. 개인은 젠더 감수성을 키우고 방송 모니터링 활동을 실천하고 정부 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5모듬은 여성의 노동에 관해 이야기했다. 여성이 보조자 역할에 머물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 및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이 이루어지는 내내 교육장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조운진 연구원은 이날 토론의 중재자 역할을 맡았다. 더 생각할 거리를 던져 줬으며 토론이 막히면 실마리를 제공했다. 🌈

성평등 충남, 우리가 함께합니다

충남 성 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교육

성 주류화란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관련된 정책과 행정 서비스에 있어서 젠더 관점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민·시민·군민 서비스를 실행하는 데 있어 특정 성이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는 과정이다.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도 및 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 전체 과정에 전문가 상담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해 충남 성 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교육 기초과정 및 심화과정을 운영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허성우 원장은 충남 성 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교육 과정을 시작하며 “한국의 여성 정책

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지만, 제도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으며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야 한다. 변화의 기쁨을 보다 많은 사람과 누리는 일상을 맞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기초과정은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젠더와 성평등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에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제도와 정책영향 사례와 컨설팅 과정 등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심화과정은 7월 7일부터 8일까지 사업, 조례, 예·결산서에 대한 컨설팅 실습으로 이루어졌다.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모두 수료한 이들은 충남 성 주류화 컨설턴트로서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교육생 미니 인터뷰

5월 11일, 충남 성 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교육이 시작된 첫날, 참여 교육생들의 포부를 들어 보았다.



저는 예산군청에서 주민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 관련 업무, 양성 평등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인지적 관점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을 키우고 행정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충남 성 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교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업무 연찬의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류승순 예산시 주민복지실장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차별이 당연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 모니터단 활동을 하면서 페미니즘에 관한 궁금증이 생겼고 작년에는 성평등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했고 올해 충남 성 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교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꾸어 나갈 힘을 충남여성정책 개발원과 함께 얻고 있습니다.



천안 엄소영



예전에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며 여성정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결혼 후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동 정책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고 평생교육 노인 쪽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퇴직 이후 노인 정책을 고민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정책이 지난 10년 동안 쇠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더 알아보고 싶어서 충남 성 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시끄럽게 할까 봐 주저했는데 아이와 함께 와도 된다고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게 됐네요. 🌈

당진 윤혜안

성평등 학교,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젠더 포럼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성평등한 사회일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평등 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고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는 젠더 포럼이 열렸다. 11월 22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세미나실은 포럼 시작 전부터 학교 내 성평등 문제에 관심을 둔 사람들로 붐볐다. 준비된 의자와 책상이 부족해 세미나실 맨 뒤와 옆자리 바닥에 앉은 사람들이 이날 포럼의 열기를 증명했다.

사회의 축소판, 학교내 성평등 실태는 어떠한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젠더 포럼은 허성우 원장의 환영사로 본격적인 문을 열었다. 허성우 원장은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는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중요한 공적 가치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며 “어른들을 위한 양성평등도 필요하지만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학교 교육 환경 속에서의 양성평등도 필요하다. 어떻게 학교에서 성평등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깊이 논의하고 생산적인 변화를 이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으로 불릴 만큼,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간 학교 내에서 다양한 성차별적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학교 내부의 책임이 아닌 사회가 함께 고민할 문제다. 이번 젠더 포럼은 이러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먼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해숙 선임연구위원

이 학교 성평등 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 했다.

정해숙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학교 성평등 교육의 영역에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육내용의 배분, 교수학습활동, 학교·학급 운영 등이 있는데,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성차별적 교육이 내재돼 있다. 특히 교육내용 배분에 있어서 학생들은 여전히 고정형화된 교과를 선택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 성평등 교육,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이 혼재돼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성교육이 성폭력 피해에 중점을 둔 성폭력예방교육으로 축소돼 진행되는 상황이다.

정해숙 선임연구위원은 “학교 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 및 교육자치단체에 성평등 교육 정책 전담부서 설치, 성평등교육진흥법 제정, 교육내용 및 교육활동에서의 성차별 개선, 교원 및 교육서비스종사자의 성평등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치는 경우가 많다.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여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비하하고 왜곡해서 그리기 일쑤다. 유아 애니메이션을 보는 단계를 지나 성차별적 표현이 만연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과정을 거쳐 학교에 온 아이들에게 학교는 또다시 미디어의 재현에 불과한 사회다.

최현희 교사는 “성평등한 학교 공간을 만들기 위해 출석 번호를 매기거나 줄을 세울 때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등 성별화 경계하기, 사회적 성차별을 은폐하지 말고 비판적 인식능력 키우기, 교직원들의 젠더 의식 향상하기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학교를 위하여

주제발표 이후 아산시 윤금이 여성정책보좌관을 좌장으로 이행찬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천안 여성회 김용자 사무국장, 박선의 학부모, 이유진 학생이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먼저 이행찬 강사는 “청소년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성폭력 예방교육은 받아 봤는데 성평등 교육은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했다.”라며 “학교 내에서 성평등이란 개념은 익숙하지 않다. 사회 인식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용자 사무국장은 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의 경험을 살려, 학교 내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지 못한 것이 사회에서는 폭력으로 발생한

다. 학교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 아닌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학부모의 입장으로 참여한 박선의 씨는 “차별과 혐오가 일상이 되는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이 걱정이 된다.”라며 “학교 내 차별과 혐오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소리 내어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유진 학생은 학교에서 직접 겪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매년 성교육을 받아 왔지만 도움이 되는 정보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와 학교 내에서 겪은 다양한 성차별적 상황을 이야기하며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 앞으로 우리 세대의 성차별적 사회가 대물림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포럼은 과열된 열기로 예정된 시간보다 더 길게

이어졌다. 성평등한 학교와 사회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관객으로 참여해 종종 고성이나 오기도 했다. 허성우 원장은 이들을 중재하며 “가치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다름으로 인해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 더 좋은 사회를 꿈꾸며 그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지금보다 좋은 사회가 더 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 중 하나다. 이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젠더 포럼은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그런 세상이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큰소리로 박수를 쳤다. 희망찬 박수와 합성 소리와 함께 이날 젠더 포럼은 마무리됐다. 🌈

“청소년이 발언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젠더 포럼 토론자 이유진 학생



가정사를 포함해서 제가 겪어 온 성차별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처음에는 걱정도 됐는데 막상 이야기를 하니 더 자유로워졌고 한 발짝 도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포럼처럼 청소년들이 발언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충남 청소년 인권연합회 인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남에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서 조례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자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충남 청소년의 인권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 성평등 충남을 만들기 위한 소통의 장 •

개원 18주년 기념 세미나

1999년 설립돼 성평등의 가치를 알리며 많은 사람과 함께해 온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올해로 개원 18주년을 맞았다. 6월 26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개원 18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어 앞으로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기로 다짐했다. 기념 세미나는 '새 정부 성평등 정책과 지역 관점의 통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논하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그간 개원을 기념하며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왔다. 2017년에도 개원 18주년을 기념하며 특별한 세미나를 열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돌아보며 지역 관점의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허성우 원장은 “성평등 가치를 중심으로 충남여성이 강하게 연결되고 여성 정책을 만들어 가는 주인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자리에 참석한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개원 초기에는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정체성이 명확해졌다.”라며 “앞으로 개발원이 하는 일을 도가 뒷받침하다 보면 충남도에 성평등 문화가 정립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라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환영사 및 내빈 소개로 개회식을 마친 이후 발제와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는 중앙대 사회학과 김경희 교수가 '새 정부 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주제로 진행했다.

성주류화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정책도구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김경희 교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평가기준은 국가 및 부처의 성평등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며 “현재의 성평등 목표는 수사적이고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앞으로 현재의 국내외적인 정치·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와 정책 환경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삶을 진단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가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평가주체인 행정조직과 공무원의 책무성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경희 교수는, 무엇보다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정책담당기구의 거취 문제는 정권 교체기마다 논란이 되어왔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20년간 반복하여 지적된 한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형태의 기구로 구성된 병합형 성평등 정책기구를 구상하고 있다. 첫째는, 정부 정책 전반을 성평등 관점에서 조정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위원회 신설, 둘째는 여성가족부의 강화다. 김경희 교수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은 다양한 집단을 포함한 숙의적 공론장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며 “지난 20년 동안의 정책추진의 성과와 한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교화된 정책논리를 마련해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성평등 충남, 정부와의 소통을 기대하며

발제 이후에는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허성우 원장을 좌장으로 광주여성재단 강현아 사무총장, 충청남도거점새일센터 이정하 센터장,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임우연 연구위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황지영 공동대표, 여성가족부 박난숙 여성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젠더거버넌스 강화를 주제로 토론한 강현아 사무총장은 “새 정부 성평등 정책에 거는 기대가 높다.”라며 “앞으로 젠더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여성 대표성 제고, 성주류화정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정하 센터장은 공정한 여성 일자리 개혁을 주제로 성별 임금격차 해소,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정하 센터장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체계적인 직무분류 및 평가기준 마련,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기업의 노력,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제도 강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로의 변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문화 조성, 취업인식교육, 민과 관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및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취업지원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일·가족·생활의 균형 실현에 관해 토론한 임우연 연구위원은 “기존까지의 인구정책 수단으로

서의 일가족생활 정책을 넘어 성별역할 분업에 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가족·생활균형 정책은 여성정책뿐 아니라 일자리 정책, 인구정책, 복지 정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어 정책 전반에 성평등적인 관점을 통합하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는 ‘기회의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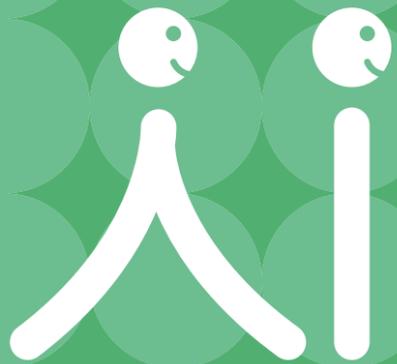
황지영 공동대표는 젠더폭력 근절에 대해 토론했다. 젠더폭력은 젠더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일컫는다. 가정폭력,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여성혐오,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이주여성의 인권문제 등을 젠더폭력으로 볼 수 있다. 황지영 공동대표는 “현재 실시되는 젠더폭력 예방 교육의 강사 배출은 일원화된 통로로 진행되는데 지역(현장) 등 다양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며 “실효성 있는 젠더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더 많은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정책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기념 세미나에 정부 여성가족부 구성원이 참여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정책과 관련해 중앙과 지역이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플로어에서는 중앙과 지역이 적극적으로 소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난숙 여성정책국장은 “중앙이 지역 정책에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난 정부에 공모사업 이외에는 없었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보다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허성우 원장은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진취적인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역의 관점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라며 “이러한 점에서 본 세미나가 갖는 의미가 크며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여성가족부에 잘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시민, 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으로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성평등 충남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과 함께 발맞추어 나갈 것이다. 🌍



우리가 꿈꾸는 세상

- 충남 젠더거버넌스 출범식
- 충남 젠더 포럼
-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소개
-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성주류화 포럼
- 여군 역량강화 워크숍

즐거운 변화, 성평등 충남을 이끈다

충남 젠더거버넌스 출범식

2016년, 충청남도는 '즐거운 변화, 성평등 충남'을 비전으로 다양성, 형평성, 포괄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양성평등 비전 2030을 수립했다. 이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이끌 충남 젠더거버넌스가 6월 14일 출범식을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은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진행했으며 공무원, 전문가, 도민 등이 참여해 젠더거버넌스의 운영 및 활성화 방향을 논의했다. 출범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특히 젠더 토크 시간에는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충남 젠더거버넌스 출범식
2017.06.14.

성평등충남!
즐거운 변화가 시작된다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이끌 젠더거버넌스 출범

세계경제포럼(WEF)의 성평등지수로 봤을 때, 2016년 우리나라는 145개국 중 116위를 차지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6년 5월에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종합순위 28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 관련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고 성별 격차도 큰 편이다.

충청남도의 성평등 현황은 어떠할까. 충남의 성평등 수준은 전국 시도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성평등 수준이 전국 평균 73.3점인 상황에서 충남은 71.0점을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즐거운 변화, 성평등 충남'을 비전으로 하는 양성평등 비전 2030이 수립된 것이다. 이 비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도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충남 젠더거버넌스가 출범했다. 6월 14일에 열린 출범식은 앞으로 충남 젠더거버넌스가 나아가 할 방향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장이었다.

출범식을 시작하며 먼저, 사정 때문에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안희정 지사가 보낸 영상 메시지를 시청했다. 안 지사는 "신분, 계급에 따른 일체의 특권을 없애고 누구나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에서 성불평등 해소가 주요 과제다."라며 "성 불평등을 해소해 충청남도가 모범 사례를 만들자."라고 말했다.

이후 김석필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이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의 주요내용과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은 젠더기반 혁신과 동등한 참여, 돌봄 생태계 조성, 차이를 인정하는 열린 지역사회, 자원배분의 성별격차 해소,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터전 등을 목표로 한다. 대표과제로는 행복한 여성 일자리 프로젝트, 남녀동수 참여 프로젝트, 따뜻하고 안전한 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비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충남 젠더거버넌스는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운영위원회, 양성평등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양성평등 정책 실행의 기반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김석필 정책관은 "관에서 주도해서는 양성평등 문화를 활성화할 수 없다. 자율적인 조직에 의해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충남 젠더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이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분석평가·통계센터 주재선 센터장이 지역성평등지수를 중심으로 충남 성평등 현황 및 대응방안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으로 지표가 구성되는데, 충남의 경우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중하위권,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하위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하위권이다. 주재선 센터장은 "관련 정책 전반에 걸친 점검으로 정책 개선·개발 방안 수립,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젠더 토크

충남 젠더거버넌스 출범식에서 가장 큰 호응을 이끌어 낸 시간은 젠더 토크 코너였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이채민 연구원의 사회로, 남궁영 행정부지사, 아산젠더포럼 장미진 대표, 천안여성의전화 김김혜영 대표가 젠더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이야기 주제는 '여성 혹은 남성으로 살면서 힘들었을 때, 행복했을 때', '성평등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이었다.

이채민 먼저 자기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김김혜영 저는 김김혜영입니다. 어머니 성이 김 씨고 아버지 성도 김 씨예요. 부모님 성을 모두 쓰고 싶어서 김김혜영이라고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김' 자 하나를 빼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 이름은 김김혜영입니다.

장미진 저는 아산젠더포럼의 대표이자 여성 농업인입니다.

남궁영 저는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남궁영이고요. 토크 시간 동안 열심히 이야기 듣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제 1) 여성 혹은 남성으로 살면서 힘들었을 때, 행복했을 때는 언제인가요?

이채민 행사 시작 전에 질문을 미리 드렸고, 웹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슬픈 부분은 답변에 응해주신 분들의 대부분이 남, 여로 살았을 때 행복했을 때보다는 힘들었을 때가 더 많다고 답변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남성, 여성 상관없이 참 힘드시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이 중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여자라서 남동생 학비를 대 주느라 공부를 못하셨다는 이야기부터 결혼하고 나서 제사 지내는 것이 힘들었다는 분들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여성이기에 어떤 힘든 점이 있었나요?

장미진 여성 농업인으로서 겪는 불평등한 상황이 많아요. 요즘은 생산뿐만 아니라 홍보 마케팅까지 농업인이 책임지고 있는데요. 부부가 같이 공동 경영인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농업대상은 남자를 대상으로 수여합니다. 관련 심의 자리에서 부부 공동 수상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해마다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올해 농업대상은 부부 공동 수상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성 농업인이 처한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남궁영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얘기해 주셨네요. 앞으로 부부 공동 수상으로 실시해야겠습니다.

김김혜영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조직에서 활동할 때 여자여서 받는 불평등한 상황이 많아요. 분명히 상대 남자분보다 제가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상황에도, 남자분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요. 남성이 대부분을 이루는 조직에서

여성은 능력보다 외모라든지 그 이외의 것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안여성의전화 내에 한 부모 여성 자조모임이 있는데요. 이들이 생계를 책임지려면 취업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능력과 별개로 최저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점을 고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채민 남궁영 부지사님은 어떠세요? 남성이어서 힘들고 불편했던 적이 있었나요?

남궁영 공식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적은 많았지만, 남성으로서 힘든 점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남자라서 불편하거나 어렵다고 느꼈던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이채민 아 그러세요? 부지사님 말씀처럼 우리나라에서 남성은 특별히 남성이어서 불편하거나 어렵다고 느끼지 않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물어도 남성이어서 특별히 불편하다는 말씀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성은 여성이라서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차별이라고 하지요.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성별이나 피부색 등으로 인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차별이 존재하지만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차별이라고 느끼

는 것 중 많이 나온 대답은 바로 맞벌이 문화였습니다. 맞벌이는 익숙하지만 맞살림은 익숙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 등으로 독박육아, 독박살림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진 것은 여성들이 얼마나 힘든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제 2) 성평등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이채민 충남은 다른 지역보다 보수적인 지역이란 이미지가 강합니다. 여러분은 성평등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김혜영 충남이 보수적인 지역이라는 걸 자주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조직의 대표는 항상 남성이고 여성은 보조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봐 왔



습니다. 의사결정 조직의 남녀 성 비율이 반반이 되면 그런 문화가 확 바뀔 것 같습니다.

남궁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충남도에서도 의사결정권자를 모실 때 남녀 비율을 맞추자는 의지는 있는데, 후보자가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남녀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부터 이

어져 온 것이 다 보니 치유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미진 충남 젠더거버넌스 출범식을 한다고 같이 얘기하자는 제안을 들었을 때 ‘일년에 몇 번 만나서 끝나고 밥 먹고 도지사과 사진 찍는 건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먼저 실시한 다음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생부터 어르신들까지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궁영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보면, 제도를 잘 설계하는 나라는 흥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망한다고 합니다. 충남 젠더거버넌스 같은 체계를 만들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 3)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남궁영 지방은 중앙보다 함께하는 행정을 더 잘 실현할 수 있습니다. 도정자문위원회 형태로 전문가 자문을 듣고 있는데 중앙의 자문위보다 우



리 도의 자문위 활동이 활발합니다. 지방이야말로 거버넌스 체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충남은 젠더거버넌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떠넘기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활성화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데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가 여러분의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진 충청남도 여성농업인회에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함께 토론회를 거쳐서 행복바우처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자부담 3만 원으로 연간 12만 원의 지원으로 문화 및 여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여가 활동 없이 살아오신 분들이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하실 때 안타까웠습니다. 바우처제도를 받아들이실 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김혜영 현장을 직접 실태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거버넌스에서 토론을 좀 해야겠죠?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산의 뒷받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거버넌스에서 많은 분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다면 충남의 성평등지수를 차근차근히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남궁영 예산은 공공영역에서 책임져 줘야 하는 부분이 엄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영역에서 해야 할 부분도 존재하고요. 공공영역에서 활동비 지원 같은 예산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채민 마지막으로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의 한 구절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머리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觀察)보다는 애정(愛情)이, 애정보다는 실천(實踐)이, 실천보다는 입장(立場)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同一)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형태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입장의 동일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젠더의 눈으로 충남을 논하다



충남 젠더 포럼

11월 7일, 충청남도 예산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2017 충남 젠더 포럼을 개최했다. 충남 젠더거버넌스 각 분과별 과제 발표 및 토의로 구성된 이번 포럼은 주제별 과제 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젠더의 눈으로 충남을 논하다’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윤금이 아산시 여성정책보좌관이 ‘성평등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실천 방법’, 이은주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장이 ‘영유아·아동·노인을 위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방안’, 이은정 천안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가족 지원 서비스의 현황과 개선 방향’, 박상철 충남고용네트워크 위원이 ‘충남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불평등’, 조미경 아산 여성친화서포터즈 단장이 ‘젠더 관점에서 본 안전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날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충남 젠더거버넌스 참여 위원들은 ‘우리의 제안’을 충청남도에 제안했다.

우리의 제안

성평등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시군 실천 강화 : 연대와 협력

1. 행정 안에서의 젠더거버넌스 강화
2.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민관거버넌스) 강화

영유아·아동·노인을 위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

1.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공보육어린이집 확대
2. 방과후 초등 돌봄네트워크 강화
3. 노인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확대 및 행복경로당 확대 지정

유연한 가족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한 가족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1.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충남 특화 정책과제 발굴
2. 생애주기별·가족유형별 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및 접근성 제고
3.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 양육친화적 지역모델 개발
4. 남성 및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운동 및 참여 유도 문화 확산

충남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불평등 해소

1. 여성이 진입가능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 및 직업훈련 강화
2. 여성의 경력개발 기회, 승진기회 등 확대
3. 충남 노동시장 성평등지수를 개발하여 관리 및 공시

젠더관점으로 안전한 마을 만들기

1. 성평등과 성평등 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2. 정책 발굴단계에서부터 시민중심의 다양한 계층의 참여
3. 다양한 정책분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공모사업 등 시민참여 사업 전개
4.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안전한 지역(마을) 만들기의 좋은 사례 확산과 지속적인 예산 투자
5. 도 및 타 시군 등 젠더폭력 및 안전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한 공유와 공동의 개선방안 마련





성평등 충남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합니다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 도구 중 하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다. 2011년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법 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성별영향정책분석 평가 지원 기관으로 지정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내에 위치한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충남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의 수행을 위한 자문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주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내부 연구원으로 구성됐으며 센터장과 전담 연구원, 센터 연구원 총 네 명이 충남도 내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한다.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컨설팅 실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의 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 이로써 여성과 남성의 공동 참여와 균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크게 정책연구, 성인지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컨설팅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양한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를 실시하고 충남 및 시·군의 성인지 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등을 진행한다.

공무원, 충청남도 및 시·군의원, 각종 위원회 위원,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등에게 성인지 의식 함양 및 성인지 업무능력 배양 교육을 운영한다. 또한, 충청남도 및 시·군의 성별영향평가 과제의 수행과 정책개선실행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2016년에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는 2,102개에 이른다. 이 중 대부분은 충남성별영향분석센터를 통해 컨설팅을 받았다. 센터 소속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돕는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내부 연구원을 비롯해 변호사, 건축사, 조경학·여성학·사회복지학·사회학·가족상담학·행정학 교수 및 전문가, 여성 및 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센터의 컨설턴트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컨설팅은 여성가족부가 구축한 GIA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평등 충남 실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임우연 센터장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컨설팅을 통해 충남도 내 공무원들의 인식이 변화되는 걸 느끼시나요?

공무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평가서 작성을 위한 여러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공무원분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항감도 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십니다. 다만 성평등 개선 조치를 도출해 내고 과제에 반영하는 것을 어려워하십니다. 앞으로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 불평등 요소를 짚어 낼 수 있어야만 자신의 과제에서 어떤 부분이 성 불평등한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많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참여율은 어떠한가요?

센터장님이 바라는 충남의 모습은 무엇이고 이와 관련된 센터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관한 많은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대체로 일방적인 강의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충남도가 계속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성평등 충남’이죠. 저희 센터가 성평등한 충남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 나아가 다양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성별영향 분석평가제도의 미래를 그리다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성주류화 포럼

2017년 한 해 동안 충청남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어떻게 추진됐을까. 12월 5일, 2017년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성주류화 포럼이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충남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에서 참여 주체 간의 협력 및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참여 주체자 각각의 역할과 협력 및 교류 활성화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충청남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충북 및 기타 지역에서 참석한 공무원 및 관계자,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으로 자리는 만원을 이뤘다.

“오늘 이 자리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성과를 체감하고 아쉬운 점을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성평등 충남을 위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포럼은 충남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임우연 센터장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이후 충남 먼저 아산시 윤금이 여성정책보좌관이 아산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성과에 대해 발제했다. 아산시의 ‘아산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6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10대 사업에 포함됐으며 2017년에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윤금이 보좌관은, 아산시의 공무원, 시민, 전문가가 힘을 모았기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특징은 공무원과 시민,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박금식 센터장은 부산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성과 및 한계에 관해서 발제했다. 부산시의 경우 2016년에 실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는 총 2,188개다. 이 중 개선의견 비율은 2.5%이며, 법령 4.3%, 계획 0%, 사업 0.9%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의견은 낮다.

박금식 센터장은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대상사업을 명확히 선정해 구체적인 정책개선(안)들을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들을 바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이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탄력적인 교육 운영, 민간영역 등과의 연계 강화 등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임원정규 운영위원은 충남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성과 및 과제에 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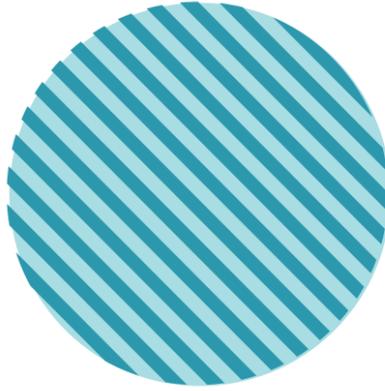
발제했다. 임원정규 운영위원은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5년간 충남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을 보면 더디지만 조금씩 변화,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무원의 이해도가 낮으며 형식적으로 실행되는 면이 있다.”라며 개선 사항에 관해 이야기했다.

“의회, 행정, 시민사회, 연구기관 등이 협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충남에서 성평등의 가치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함께 큰 그림을 그려 봐야 합니다.”

이후 대전여성단체연합 김경희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순중 여성정책팀장,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류유선 센터장, 천안여성의전화 김희겸 사무국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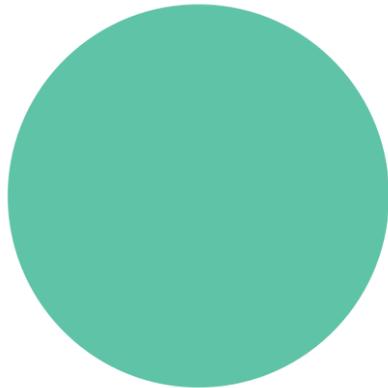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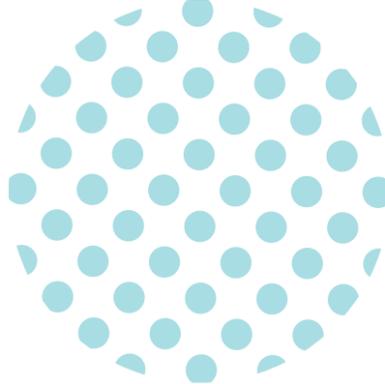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 성과를 돌아보며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민관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삶의 경험과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민관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성평등 충남, 이번 포럼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 소통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





여군과의 소중한 약속

여군 역량강화 워크숍



시 여성가족재단 일가족 양립지원센터 이선형 센터장이 일·가정 양립 정책과 제도에 관해 강의했다. 강의 이후에는 질의 응답 시간을 보냈다.

여군들이 직접 일과 가정의 현실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모듬을 나누어 군 내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민했다. 그중 육아휴직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활용, 아이 돌봄 서비스 현실화, 야근 문화 지양, 여군과 남군의 차별 금지 등의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이번 육군본부 여군 워크숍 추진을 계기로 3군 본부 인사기획 장교 및 여성정책 장교들과 상호 기관을 방문하며 협업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대 내 성평등 문화 확립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6월 9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여군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여군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육군본부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공동으로 워크숍을 진행한 것이다. 이날 워크숍은 리더십과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여군 50여 명이 참석했다.

허성우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젠더리더십 김양희 대표가 젠더 리더십에 관해 강의했고 서울

About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연수
- 지면으로 보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언론 속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한 발 앞선 성평등 사회에서 배우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연수

5월 29일부터 6월 6일까지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가 독일과 프랑스로 국외연수를 떠났다. 독일, 프랑스는 성평등 수준이 높은 나라로 사회 전반에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출산과 돌봄을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지 않으며, 기업은 여성의 직업 기회 창출을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연수를 진행한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이후 5개 분야의 정책제언을 하기도 했다. 연수에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원 네 명도 참여해 성평등 충남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로 삼았다.

만하임 성평등위원회는 연방 기본법과 바덴뷔템베르크주의 기회균등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조직이다. 성평등위원회는 행정 내부와 외부적으로 도시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성평등위원회는 정치권, 행정권, 도시공동체에 최신 성 평등 관련 테마에 대한 정보를 주고 상담을 진행하며 남녀 기회평등을 촉진하는 프로젝트와 조치를 현실화한다. 또한, 행정 내부와 도시공동체에 이러한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슈바르트발트 바르 호이베르크 상공회의소는 지역경제의 파트너로 3만 5천여 개 기업 회원을 대상으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슈바르트발트-바르-호이베르크 여성일자리 센터를 운영한다. 여성을 기업체나 경제적 이해관계자와 연결해 주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구직, 재취업, 창업 시 직업생활에서의 여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들의 직업 관련 문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여성의 직업기회 창출을 위한 윈스탑 서비스 만하임시청 성평등과

여성 평생교육, 가족 전체를 위한 교육 운영 시스템 슈바르트발트 바르 호이베르크 상공회의소



지역 공동의 가족친화도시 조성 노력 및 독일의 저출산 대책 법적 프레임 하이델베르크 가족연합

하이델베르크 가족연합은 가족친화경영에 관심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다. 가족연합에는 듀얼 커리어, 양육, 방학 중 양육, 직장가 가정의 조화, 직장가 가족간병의 조화 등 다양한 워킹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다. 가족연합의 파트너십은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데 특히 직장가 가정의 조화에 관한 최신 정보 제공 및 관련 행사 참가의 혜택이 돋보인다.

지역여성의 지역사회건설 참여 활성화 슈투트가르트 부모자녀센터

노동자복지협회의 홀로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의 모임에서 비롯된 슈투트가르트 부모자녀센터는 1986년 창립되어 지난해 30주년을 맞이했다. 센터에는 영유아보육실, 아동 긴급 보호소, 재활용가게, 카페, 식당, 작은 도서관, 스포츠실, 댄스실, 공작실 등의 시설이 있으며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돌봄, 상담, 교육, 다과 등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센터에는 14명의 여성이 일하고 있다. 센터가 여성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프랑스가족연합협회는 가족간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목표로 시작해 더 나아가 가족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연합협회는 전국 차원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가족정책에 관한 정책제의나 로비를 하는 두 가지 기능에 충실하고 있다. 연합협회는 기업의 가족정책 참여를 설득하는 등 가족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여성권익 향상과 저출산 정책의 성과와 전망

프랑스가족연합협회



프랑스의 출산정책 및 향후 발전 방향

국립가족수당기금공단

프랑스 국립가족수당기금공단은 정부의 가족지원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가족들에 대한 각종수당 지급, 육아 휴직 급여 지급, 보육시설 지원을 통해 가족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출산정책을 지역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세계적인 인구문제로 보고 여러 정책을 추진했는데 주안점은 육아를 하는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국외연수를 다녀온 연구원들에게 듣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연수에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소속 연구원 네 명이 함께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온 이들의 소감을 직접 들어 보았다.

“가족, 단일 정책보다는 패키지 정책으로”

교육사업팀 우복남 선임 연구위원



우리나라 가족 정책은 단일 정책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많은 정책이 단일 정책이 아니라

패키지 정책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정책은 교육, 경제, 일자리, 복지 등 다양한 정책과 연동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쉬는 문화가 평등한 사회를 만듭니다”

교육사업팀 이채민 연구원



프랑스에서는 전 국민의 휴가가 한 달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경쟁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일하는 시간도 길

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문화로 이어집니다. 프랑스처럼 전국민이 일년에 한 달 정도는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돌봄 문제는 모두의 책임입니다”

교육사업팀 조윤진 연구원



독일, 프랑스 두 나라가 저출산이나 돌봄의 문제를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지 않으려는 인식과 정책

방향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이나 돌봄을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성별영향분석평가 임우연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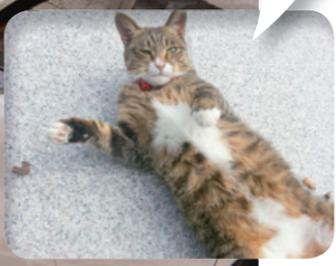
독일 기업들은 여성 일자리 지원을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것을 기업을 위한 일로 생

각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분위기를 느꼈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충남여성 정책개발원을 소개합니다



개발원의 마스코트
'고딩이'예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연구·교육기관입니다. 그동안 개발원은 충남도 내 여성농·어업인, 문화적 차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들, 일자리를 찾는 청·장년여성들,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과 노인, 그리고 장애여성들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도정 반영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2016년,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을 통해 도정 전반에 성인지관점이 통합되고 성평등 수준을 높이려는 의지가 표명되었으며 2017년에는 젠더거버넌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충남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의 질적 도약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성평등 정책 로드맵이 현실화되면서 보다 많은 충남여성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의 참여와 복지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져 성평등 정책 발전의 새로운 단계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발원은 이러한 정책이 잘 구현되도록 도정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여성들과의 소통을 더욱 넓고 깊게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을단위의 여성풀뿌리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성들의 숨겨졌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젠더거버넌스 기반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여성들의 역량이 커지면 이 힘으로 가정과 마을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질서와 폭력이 아닌 따뜻한 이해와 존중의 문화가, 그리고 도정에서는 성인지 관점이 통합되어 성평등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문화가 퍼져나가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연구 사업 소개

여성/가족분야 연구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성 주류화 확산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남 여성 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여성의 현실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과제를 수행하여 여성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갑니다.

사회복지분야 연구

영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실현에 필요한 정책 연구와 사회 빈곤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집단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을 통해 '모두를 배려하는 복지 사회 충남' 실현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문화분야 연구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등 충남도내 이주민의 인권 증진,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조사와 다문화 사회의 본격적인 도래에 대비한 지역사회 다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수행하여 '이주민의 사회통합과 도민과의 공생을 지향하는 충남'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과제

여성, 가족, 노동, 다문화, 복지 등의 기초자료 구축 및 조사연구, 정책개발

정책과제

사회적 이슈 및 도정 관련 부서의 정책 반영을 위한 정책 연구

현안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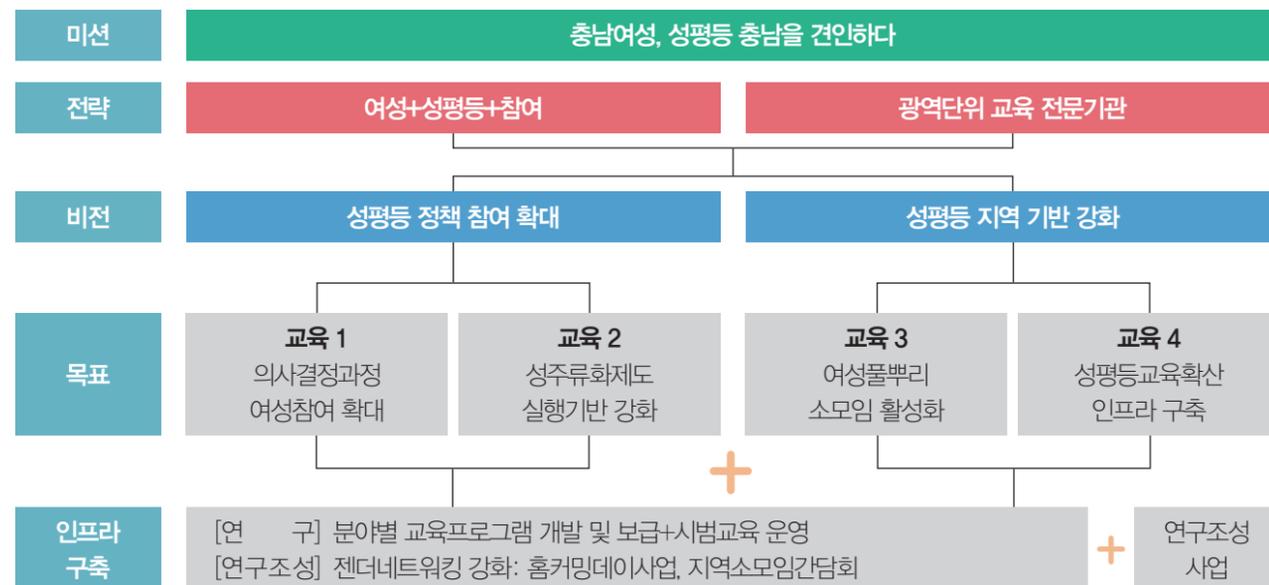
충남도 및 시·군정의 당면 시책 개발 연구

수탁과제

충남도 및 시군 요청에 의한 계획 수립, 지역조사연구 등의 연구과제 수행

교육 · 사업 소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충남 여성의 정치·경제·사회 참여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과 다양한 집단의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한 도정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백석대 · 백석문화대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성평등' 협력

2017.02.15.



백석대학교(총장 최갑종)와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장종현)는 15일(수) 오전 11시, 백석대학교 자유관 회의실에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각 기관 간 연구와 교육협력, 정보교류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열리게 됐으며, 각 기관들은 △성평등 교육 운영 △연구 및 학술회의 등에 함께 나설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석대학교 최갑종 총장, 한정수 산학협력단장, 백석문화대학교 송기신 부총장, 최선기 산학협력단장, 평생교육원 강기정 원장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안정선 원장, 김영주 기획조정실장, 우복남 교육사업팀장 등이 참석했다.

백석대학교 최갑종 총장은 "현대사회에서 성평등 교육은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 내에도 성평등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안정선 원장은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이 낮음에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변화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하며 노력하고 있다"며 "대학 들과는 첫 협약인데, 앞으로 정교하고 내실 있는 교육 사업 성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올해 18주년을 맞이했으며, 충청남도를 기반으로 여성지위 향상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남 여성의원 성인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2017.02.23.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은 23일(목) 회의실에서 '2017 충남 여성의원 성인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충남도의회 정정희 문화복지위원장, 김연 의원을 비롯한 15개 시·군 의회 여성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 2014년부터 4년 동안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지역 여성의원 특화 워크숍의 마지막 단계로 성인지적 관점의 지역 이슈 점검 및 공약 발굴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워크숍에 앞서 충남 성평등 수준과 양성평등 비전 2030의 주요 내용에 대한 송미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팀장의 발표가 있었으며, 성인지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역 이슈와 지방선거 대비 공약 발굴을 중심으로 의정활동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의정활동사례 발표자인 최홍림 의원은 전국 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공동대표이자 목포시의회 여성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소개하였으며, 의정활동 관련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한 지미연 경기도의회

의원의 두 번째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워크숍 마무리 는 타지역의 좋은 사례를 우리지역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찾는 한편, 내년 선거 대응 성인지적 지역 공약 발굴을 위한 여성의원들의 열띤 토의가 진행되었다. 발표에 참여한 두 의원 모두 그동안의 활동경험을 통한 선거대비 팁을 제공하는 등 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지역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활동지속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지역소모임 정책워크숍 실시

2017.05.23.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허성우)은 지난 19일 오전 10시 논산시청 상황실에서 '논산시 지역여성 풀뿌리 소모임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15개의 논산시 여성 풀뿌리 소모임 대표 및 활동가 20여 명과 논산시의회 민병춘 의원, 담당 공무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원장 및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여성 풀뿌리 소모임의 활동 현황에 대한 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에 이어 지역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 및 교육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간담회 진행은 소모임별 활동현황 소개와 지자체 및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제안 등의 발표와 향후 지역여성과 함께 연대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참석한 여성들과의 즉석모임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며 "논산지역의 발전에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병춘 의원은 "이자리가 논산 여성들이 연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제까지 꿈꿔온 자리"라며 "오늘 함께한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모임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관계자는 "지역여성과 직접 소통하면서 연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여성들간의 네트워크 강화 및 지역여성 정책참여확대 등을 위해 지역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갖겠다"고 밝혔다.

[중도일보] 장병일 기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여성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2017.06.01.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허성우)은 6월 1일(목)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남여성단체협의회장단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리더교육과 간담회를 개



최했다. 이날 허성우 원장은 '충남여성정책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여성리더교육 강사로 나섰다.

허 원장은 한국사회 성별격차의 심각성, 정치적 대표성 영역의 여성참여 저조, 일상적 젠더폭력 등의 불평등한 현실을 먼저 지적했다.

이어 충남이 성평등 수준 4년 연속 하위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의사결정 영역과 안전 등의 영역 등에서 성 평등한 환경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충남 지역 삶의 현장에서 여성리더로서 참여하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와의 역할과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충남양성평등비전 2030의 추진 전과정에 여성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충남실현에 모두 함께하자"고 말했다.

[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육아지원 모델 구상 토론회 개최

2017.08.02.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허성우)은 8월3일(목) 세미나실에서 '충남 농어촌 육아지원 모델 구상을 위한 토

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육아지원 기반이 취약한 충남지역의 부모에게 육아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좌장은 지역중심의 돌봄품앗이 및 공동육아에 대한 전문가인 차성란 대전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충남지역의 육아지원 인프라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유형의 공동육아 모델 제시 및 부모들의 자발적인 육아 참여 문화형성 가능성을 제안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은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충청남도 군단위 지역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양육실태와 정책적 요구에 대한 조사에서 양육자 10명을 면접조사하면서 도출된 농어촌 지역의 양육실태와 지역사회의 양육 인프라 및 문화적 특성, 육아지원 기반 조성정도 등의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양육자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응답자의 성별, 거주지역별(읍, 면), 맞벌이 여부별로 지역중심의 양육 기반과 공동양육에 대한 인식,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욕구, 지역사회와 직장의 양육에 대한 인식 및 환경조성 정도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 현재 지역내 육아지원 체계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육아지원 기반이 취약한 지역과 가정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이은정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도심지에서 벗어난 천안지역에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계획하고 있으며, 하미용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도·농이 복합된 세종시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과 관계된 행정·센터·주민의 역할에 대해 소개한다. 김미정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센터의 가정양육 기능과 한계, 충남도의 가정양육지원 시책을 소개하고 취약지역의 육아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본 토론회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4대 복합·혁신과제 중의 하나인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가정양육지원 여건 개선'을 주제로 진행되며,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및 아산시, 태안군의 담당자가 참여하며, 타 지역인 세종시 담당자,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예정이다.

[불교공뉴스] 이경 기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공주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2017.08.08.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허성우)은 8월 8일(화) 오전 11시 공주대학교 중회의실에서 충남의 성평등 문화 발전과 대학생들의 건강한 시민사회 인재로의 성장을 목적으로 공주대학교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각 기관 간 지역연구 및 교육협력, 정보교류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자리로 공주대



학교 박승철 학생지원처장 및 행복상담센터 직원들과 여성정책개발원 허성우 원장 및 연구원 등 양측에서 13명이 참석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충남도립대학, 백석대학교 등 지역대학과의 업무협약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성평등의식이 강화되고 지역사회 저변으로 성평등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정책개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충남소재 대학들과의 업무협약을 확대하여 지역 청년들의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청년 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대학생, 청년들과 더불어 성평등 충남을 위한 길에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대전투데이] 김정한 기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지역연구지원 사업 협약식 개최

2017.08.24.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허성우)은 24일 '2017 지역연구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개발원은 올해 충남소재 대학(원)생들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자체 연구지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번 연구과제는 백기홍, 손승찬, 서지영(공주대학교 경제학과)과 이예림(공주대학교 애니메이션과)학생의 두 건이 선정됐다.

올해 연구주제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성차별에 대한 연구: 충청남도의 지역적 특색을 중심으로(백기홍 외), △여성의 비혼 선택 원인과 정책적 지원 방안(이예림)이 선정됐다.

허 원장은 "이번 연구 사업에 선정된 학생들의 연구가 좋은 성과를 내서 본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삶에도 좋은 경험으로 충남지역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충남의 성평등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개발원 관계자는 오는 11월 연구과제가 종료되면 결과발표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기획조정실

이름	직위(직책)	전공분야	업무
김영주	수석연구위원(실장)	문화사회학	연구, 교육, 행정팀 업무총괄 여성, 가족정책, 여성인권

연구팀

이름	직위(직책)	전공분야	업무
송미영	선임연구위원(팀장)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김종철	수석연구위원	교육공학	여성친화도시
최은희	선임연구위원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
임우연	선임연구위원	가족사회학	가족·여성정책, 여성친화도시
안수영	연구위원	노동사회학	일자리연구, 여성인적자원개발
태희원	연구위원	여성학	젠더연구
김지영	연구위원	여성학	여성노동연구
김미란	연구조교	-	연구지원

교육사업팀

이름	직위(직책)	전공분야	업무
우복남	선임연구위원(팀장)	언어문화학	업무총괄, 사업기획 및 운영
조윤진	연구원	사회복지학	교육·연구조성사업
이채민	연구원	사회학	교육·연구조성사업
이경하	연구원	사회학	대외협력, 홍보사업
허선영	연구조교	-	연구 및 교육사업 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이름	직위(직책)	전공분야	업무
임우연(겸직)	선임연구위원(센터장)	가족사회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총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성인지 통계, 여성친화도시, 연구, 컨설팅
김종철(겸직)	수석연구위원	교육공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운영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김지영(겸직)	연구위원	여성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운영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임현정	전담연구원	사회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관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컨설턴트 관리, 포럼 개최 및 교육지원
호지영	연구조교	-	운영 및 교육지원

행정팀

이름	직위(직책)	업무
김기석	행정팀장	행정팀 업무기획·검토조정, 인사, 이사회, 경영평가
김매화	행정원	일반회계 예산 결산, 기금운영, 세입세출외운영
박선미	행정원	계약, 용역사업, 복지제도, 직원교육, 홈페이지관리
최영락	행정원	시설 및 환경정비, 차량관리
호광자	행정원	식당운영 및 관리
이원우	행정원	시설 및 환경정비, 소방훈련, 전산, 개인정보관리
김진순	행정원	환경관리
조이슬	행정원	행정지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충남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며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든직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